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2024.5.29(수) 14:00

협 의 회 회 의 실

#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회의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목 차

<b>1. 회의 개요</b>	-----	1
-----------------	-------	---

## **2.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한국-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교류협력 전략 ----- 7
- 부여군-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 37



# 1 회의 개요

## □ 개요

- 일 시 : 2024. 5. 29(수), 14:00~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자체 : 국제교류 담당자 등(경기 연천군)
  - 멘 토 : 이지은 교수(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박병남 정책보좌관(충남 부여군)
  - 협의회 : 국제교류부장, 담당자

## □ 회의내용

- 우즈베키스탄 교류 관련 국가 특성 및 협력 전략 등
- 우즈베키스탄 교류 관련 질의·답변

##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회의 순서 및 참석자 소개	국제교류부장
14:10~15:00	'50	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 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이지은 교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15:00~15:30	'30	우즈베키스탄 교류 추진 사례 공유 (충남 부여군 사례)	박병남 정책보좌관 (충남 부여군)
15:30~16:00	'30	지자체 질의, 응답	전체 참가자



## 2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경기도 연천군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이지은(한국외대)

1. 고려인 주 거주국 카/우 기본 정보
2. 카/우 국제교류 현황과 고려인 커뮤니티 정보
3. 연천군 고려인 유치방안: 고려 사항 및 제언

# 1. 고려인 주 거주국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기본 정보

## 1.1. 카자흐스탄

표 1. 카자흐스탄 종합 개관

국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아스타나(Astana)
면적	272만4900km <sup>2</sup> (한반도 12배, 남한 27배/세계 9위)
인구	약 19,606,633명(세계 66위)
인구밀도	7명/km <sup>2</sup> (세계 236위)
민족구성	카자흐인(70.7%), 러시아인(15.2%), 우즈베크인(3.3%), 우크라이나인(1.9%), 위구르인(1.5%), 독일인(1.2%), 타타르인(1.1%), 고려인(0.6%)
교민 현황	고려인(118,450명), 재외국민(944명)(2021년 기준)
출산율	3.32명 (2021년 기준)
언어	카자흐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종교	이슬람교(69.3%), 기독교(17.2%) (2021년 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크예프(Kassym-Jomart Tokayev, 2019.03~)
총리	올자스 베크테노프(Oljas Bektenov, 2024.02~)
GDP	\$2,967억(명목, 2023년) / \$6,934억(PPP, 2023년)
1인당 GDP	\$14,778(명목, 2023년)/\$34,534(PPP, 2023년)
화폐	텡게(KZT)/ 기호 : ₸
행정구역	17개 주(Oblast), 3개의 직할시, 1개의 수도
인간개발지수(HDI)	0.802/ 67위 (2022년)
시간대	UTC+5(서부/동부) *2024년 3월 단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3에서 -4시간으로 변경 <sup>1)</sup>
무비자 입국	최대 30일
국가코드 및 국가번호	KZ +7

### ■ 정치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단임제)<sup>2)</sup>
- 의회 구성 : 양원제(총 156석, 상원 49석, 하원 107석)

1)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자흐 전국 단일시간대(한국시차-3→-4) 적용(2024.3.1.부터)” 2024.02.14., [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8994/view.do?seq=1347165](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8994/view.do?seq=1347165) (검색일:2024.05.17.)

2) 202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 변경됨.

○ 주요 인사

- 대통령 :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2019.03~)
- 상원의장 : 아쉽바예프(Mauren Ashimbayev, 2020.05~)
- 하원의장 : 코샤노프(Yerlan Koshanov, 2022.02~)
- 총리 : 벡테노프(Oljas Bektenov, 2024.02~)
- 외교장관 : 틀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2023.08~) - 부총리 겸직

○ 주요 정부 기관

- 대통령 산하 헌법 기관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는 각 민족 대표가 있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또한 해당 기관 소속으로 상·하원에 고려인 출신이 포진되어 있음

■ 경제

-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 경제 성장 이룩, 현재 중앙아시아 경제 맹주로 부상
- 카자흐스탄 경제는 석유·가스 관련산업에 집중, 총 산업 생산의 54% 이상 차지하여 의존도 높음/ 단순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 실시 중이나 효과는 미미/ 2000년 이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유지<sup>3)</sup>
- 농업은 GDP의 5% 차지, 주 생산품은 곡물(밀), 감자, 포도, 야채, 멜론 등/ 주요 축산품은 유제품 가공류, 고기, 양모 등/ 농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카자흐스탄 알마티, 쉘켄트 등 남부 지역에 스마트팜 등 농업 부문에서의 현대화 진행
- 카자흐스탄 전체 고용인구 12%가 농림수산업 종사, 정부 정책으로 ‘농업 산업 단지 개발 프로젝트 2022~2026’ 추진 중/ 북부 카자흐스탄 주(州)에 2년 동안 총 21개의 낙농장 신설, 우유 총생산량 64만8000톤 달성(카자흐스탄 전체 생산량의 10.3%에 해당)/ 카자흐 정부는 젖소 400마리 규모의 낙농 목장, 1000톤 규모의 채소 저장소, 연간 5000톤 규모의 양계장 및 양식장 건설을 목표로 정책 진행<sup>4)</sup>

3) 정민현, 김초롱. 2021. “카자흐스타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6. p. 1. /pp1-11.

4) KOTRA. “2023년 카자흐스탄 농업 동향.” 2023.04.05.,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45137&mid=a304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4.05.20.)

## ■ 역사

- 카자흐스탄은 스텝 초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목 문화 특성을 가짐/ 기원전 200년경 중국 북부로부터 훈족(Huns)이 와서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 장악
- 이후 유연(劉淵)·철륵(鐵勒) 등 다양한 유목 민족이 카자흐스탄 일대를 차지하였고, 6~7세기경에는 투르크(돌궐) 제국 건설/ 이때부터 투르크의 언어와 문화는 현대 카자흐스탄이 자신들이 투르크 민족이라 여길 만큼 영향 미침
- 1218~1221년경 몽골의 칭기즈칸이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전역을 석권하고 그의 첫째 아들 주치의 후손이 1240년 킵차크 칸국(Kipchak Khanate; Golden Horde)을 세움
- 티무르제국이 우즈베크 칸국(Uzbek Khanate)에 의해 무너지고 15세기 초에 카자흐인이 투르키스탄(지금의 중앙아 지역)에 등장하였고, 그 가운데 유목 성격이 강한 부족이 카자흐칸국(Kazakh Khanate)을 건설
- 카자흐 칸국은 쥬즈(Juz)라 불리는 3개 부족 통합체(대쥬즈 Great Juz :/ 발하쉬 호수 남부 지역), 중쥬즈(Middle Juz : 카자흐 중부), 소쥬즈(Little Juz : 카자흐 서부)로 나뉘었으며, 현재에도 카자흐인들은 자신의 출신을 구분 시 쥬즈 개념 사용<sup>5)</sup>
- 이후 17~18세기 카자흐 칸국들을 괴롭히던 준가르(Dzungar)의 침략과 지배로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쇠퇴하였고, 청제국과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유입으로 점차 칸국 입지 축소
- 18세기 소쥬즈 아블라이 칸 제정러시아에 보호 요청,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1860년경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에 합병
- 1917년 제정러시아 내 볼셰비키 혁명에서 카자흐 민족 지식층인 알라쉬 오르다의 독립운동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소비에트 정권 수립/ 당시 러시아인들은 키르기즈와 카자흐 민족 구분 혼선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수립<sup>6)</sup>
- 소련 공산당은 1924~1925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

5) 카자흐인의 정체성은 정주가 아닌 유목 문화에 있으며, 쥬즈는 혈연에 기반한 씨족 개념

6)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목 문화이기에, 정주 문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카자흐를 '키르기즈'라 부르고, 키르기즈를 '카라 키르기즈(검은 키르기즈)라 불렀으나 1925년 국경획정과 함께 명칭이 현재 부르는 카자흐와 키르기즈 개념이 확립됨.

- 화국 구성 개혁안을 추진 결과, 1925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 1936년 카자흐스탄은 소련 구성 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 1950년대 말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집권 시기 추진된 ‘미개척지 개간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 8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 본격적인 식민 시작/ 1960년대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 중 러시아인 43%, 카자흐인이 29%라는 기형적인 민족 구성 초래/ 당시 고려인들 또한 많이 이주
  - 1989.6월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나자르바예프는 1990.4월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 이어 1991.12.1. 치러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98.7%의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
  - 1991.12.16. 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독립 선언

■ 종교 및 사회 문화7)

○ 종교

-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나 세속주의 국가에서의 이슬람이라는 점이 특징
- 소비에트 시기 이슬람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 이를 믿는 민족이 유입, 혼재되면서 세속주의와 종교 다양성 안착된 편/ 이슬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편이며, 중동 이슬람국가에서처럼 엄격히 따라야 하는 종교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문화의 일부로 여기는 인구가 대부분
-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전파(7세기)되기 전 존재하던 조로아스터교 등의 흔적도 남아있고, 소련 시기 이슬람이 급진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하던 정책 지속
-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현대 중앙아 5개국은 헌법상 세속주의 국가/ 다만, 각 국가의 특성마다 사회 내 이슬람의 정도가 상이/ 한국 내 기독교 혹은 불교 신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신앙 수준이 있는 것과 유사

7) 중앙아시아 사회, 문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2022).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다해 서적 참조.

○ 사회 문화

-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북부 국경 약 7천 킬로 공유) 중앙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세속적, 러시아화된 사회로 분류
- 동시에 대가족제, 끈끈한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 큰 편차 없이 전통 및 문화 유지, 전근대적 혹은 보수적 사고방식 또한 존재
- 식문화는 빵과 고기, 요거트 및 치즈, 말린 과일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
- 한국 K pop의 영향을 받은 Q pop이 최근 젊은 세대에 큰 인기

■ 기후 및 지리

○ 대륙성 기후로 연교차 및 일교차 매우 큰 편, 영토가 방대하여 북부/중부/남부 간의 격차도 큼/ 사계절 존재

- (겨울)(북부)길고 추우며 1월 평균 기온  $-22^{\circ}\text{C}$ , (중부) 1월 평균 기온  $-18^{\circ}\text{C}$ , (남부) 온난한 편으로 1월 평균 기온  $-3^{\circ}\text{C}$ .
- (여름)보통 길고 건조함. (북부) 따뜻하며 7월 평균기온  $20\sim 24^{\circ}\text{C}$ , (중부) 더우며 7월 평균기온  $26^{\circ}\text{C}$ , (남부) 무더우며 7월 평균기온  $30^{\circ}\text{C}$ .
- 여름의 경우 강수량이 많지 않아 건조하나,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오른 편

○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이자, 러시아와 6,846km, 우즈베키스탄과 2,203km, 중국과 1,533km, 키르기스스탄과 1,051km, 투르크메니스탄과 379km의 국경을 공유하는 내륙국가

-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카스피해에서 알타이산맥,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부 시베리아 평원 에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와 사막까지 뻗어있음
- 주요 하천 및 바다로는 발하쉬, 차른협곡, 우랄 강, 시르다리야 강, 아랄 해 등이 있음.

## 1.2. 우즈베키스탄

표 2. 우즈베키스탄 종합 개관

국호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수도	타슈켄트(Tashkent)
면적	447,400km <sup>2</sup> (한반도의 약 2배, 남한의 4배)
인구	약 37,030,884명(세계 40위)
인구밀도	80.2명/km <sup>2</sup> (세계 138위)
민족구성	우즈베크인(84.5%), 타지인(4.8%), 카자흐인(2.4%), 카라칼팍인(2.2%), 러시아인(2.1%), 고려인(0.6%)
교민 현황	고려인(약 170,000명), 재외국민(약 3000명)(2018년 기준)
출산율	3.17명 (2021년 기준)
언어	우즈베크어(공식 국어), 러시아어(통용어)
종교	이슬람교(88%), 러시아정교(9%), 기타(3%)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sup>8)</sup>
대통령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총리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Nigmatovich Aripov, 2016~)
GDP	\$1,044억(명목, 2023년) / \$4,018억(PPP, 2023년)
1인당 GDP	\$2,667(명목, 2023년)/\$10,936(PPP, 2023년)
화폐	숨(so'm/c'ym)/ 기호 : UZS
행정구역	12개 주(viloyat), 1개 자치공화국(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개의 수도(타슈켄트)
인간개발지수(HDI)	0.727/ 106위 (2022년)
시간대	UTC+5(서부/동부)/ 한국과의 시차 -4시간
무비자 입국	최대 30일, 3일 이내 거주등록 필수(호텔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함),
국가코드 및 국가번호	UZ +998

### ■ 정치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연임제)
- 의회 구성 : 양원제(총 250석, 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 인사
  - 대통령 :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2016~/ 3연임 중)
  - 상원의장 : 노르바예바(Tanzila Norbaeva, 2019.06~)
  - 하원의장 : 이스마일로프(Nuriddinjon Ismailov, 2015.01~)

8) 2023년 헌법 개정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총리 : 아리포프(Abdulla Aripov, 2016.12~)
- 외교장관 :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2022.12~)

○ 주요 정부 기관

- 총리실 산하 국제문화센터(International Cultural Center)가 있으며, 각 민족 (타지크, 고려인, 게르만 등)별로 존재/ 1991년 8월 31일에 독립을 선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20여 소수민족 감독/관리 차원에서 소수민족들이 문화협회 조직 장려, 이들 문화협회가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인 소수민족문화부흥지원센터에 등록/ 현재 소수민족문화부흥지원센터는 국제문화센터로 이관<sup>9)</sup>
- 홈페이지 : <https://interkomitet.uz/en/culture-centers/6?nav=about>

■ 경제

-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2016.12)이후 국가 경제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방, 자유화 정책을 추진/ 우즈베크 경제는 최근 5% 상회하는 성장률 유지
- 현재 WTO 가입 추진 중/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외환자유화, 경제특구 조성, 조세개혁 등 경제자유화 정책 적극 추진 중
- 현재 우즈베크 내에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10개 경제자유구역(FEZ) 설립 ▶ 나보이, 안그렌, 지작, 위르구트, 기귀두반, 코칸드, 하자라습, 시르다리아, 나망간, 테르미즈 신설.
- 우즈베키스탄은 198개국과 무역 관계 체결, 교역액으로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대한민국 순/ 수출은 산업재, 식품, 기계류가 주, 특히 과일 및 채소 수출이 2023년에 176만 톤으로 대폭 증가/ 수입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산업재, 화학품이 주도, 총 수입액은 381억 4,000만 달러(약 5조 930억 원)로 전년 대비 24.0% 증가<sup>10)</sup>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 광공업, 농업 비중이 크며, 농업 가운데 농작물업(면화 포함)이 47.5%, 축산업 48.5%로 이 둘을 합한 농업이 96.7% 차지<sup>11)</sup>/ 부

9)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bekistan is a united multi-ethnic country" 2017.01.24., <https://president.uz/en/lists/view/198> (검색일:2024.05.23.).

10) KIEP. "우즈베키스탄, 2023년 대외무역 626억 달러로 급증" 2024.01.22.,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60675&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60675&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5.)

11) KOTRA.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 2021.04.20.,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1552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1552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

가가치 높은 품목으로 전환이 핵심 목표

## ■ 역사

- 우즈베크 민족은 카자흐 유목집단에 비해 일찍이 중앙아시아 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정주, 농업 기반 전통 강함
- 6세기 중엽 돌궐 제국 성립 후 돌궐족 진출,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당 패배, 사라센 군이 승리함으로써 현 중앙아 남부 일대가 이슬람권으로 편입/ 13세기 초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나 14세기 무렵 몽골 칸의 세력 약화로 티무르 제국 시대 시작
- 오랜 세월 중앙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란계, 투르크계 민족과 13세기 진출한 몽골계 민족의 융합으로 오늘날 우즈베크 민족이 형성되었으며, 1507년 샤이바니 왕조 출현(현 우즈베키스탄 지역인 부하라, 히바, 코칸드 일대)
- 16세기 제정러시아의 아스트라칸 정복 후 중앙아 진출(현 카자흐스탄 일대) 본격화, 19세기 제정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현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포진했던 부하라칸국,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 차례로 병합
-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발발 이후 1918년 투르키스탄(현재의 중앙아 우, 키, 타, 투 지역 일대) 자치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1924년 소련이 이를 민족 단위로 재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선포
- 1991년 8월 31일 독립 선언 이후 이슬람 카리모프 공상단 제1서기를 직선을 통해 대통령 선출, 카리모프 대통령은 서거(2016.09)까지 재임

## ■ 종교 및 사회 문화<sup>12)</sup>

### ○ 종교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다수 차지, 중앙아 5개국 중 종교적 색채가 강한 편/ 거리에서 히잡 착용 여성을 중앙아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목격 가능/ 헌법에 세속주의 국가 명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종교공동체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21년 종교법을 개정하며, 지역 수준에서 모스크, 교회 등 종교 시설과

---

[4&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5.)

12) 중앙아시아 사회, 문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2022).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다해 서적 참조.

종교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명 동의자 수도 기존 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축소/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식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 삭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대학교 및 이슬람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재정 지원/ 단, 이슬람 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의 재정지원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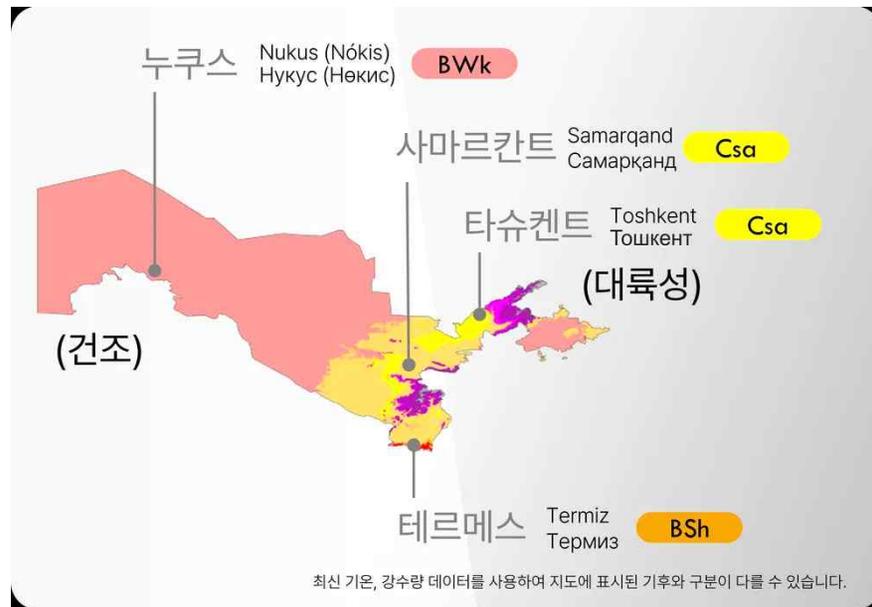
#### ○ 사회 문화

- 우즈베키스탄은 정주 문화가 일찍 정착, 지역 연고에 기반한 공동체가 강력하게 형성/ 특히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지역 파벌 존재
- 가족 다음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할라(Mahalla)라는 이름으로 불림/ 현대 사회에서도 마할라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 마할라 원로는 투표로 선출되며 공동체 유지가 우선 순위
- 연장자 존중 문화는 언어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존칭어 존재
- 우즈벡 인들은 웃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심장 부근)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

#### ■ 기후 및 지리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이며, 적절한 수자원 등 농경/정주문화 발전 기반이 갖춰져 있어 고대부터 중앙아 지역 중심지이자 문명 발전의 근원지/ 오아시스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 대륙성 기후 중에는 한랭 반건조기후(BSk)와 지중해성 기후(Csa)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도시들의 강수량이 500mm 안팎/ 따라서 사막을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생물 군계는 온대 초원 관목지
- 평균 기온은 (겨울)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 월 평균 -3 도℃, 남부지역은 +3 도℃ 수준임. (여름) 북부지역은 7 월 평균 + 26 도℃이고, 남부지역은 +32 도℃ 정도/ 단, 최근 기후 이변으로 혹한, 혹서가 빈번해지는 추세

그림 1 우즈베키스탄 기후대



- 동쪽의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지대를 제외하면 지형은 전반적으로 평평한 편/ 우즈베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아랄해가 과거 소련의 면화 사업으로 인해 강물의 유입이 해마다 축소되며 아랄해 복구가 국가적 사안/ 이중내륙국

## 2. 카/우 국제교류 현황과 고려인 커뮤니티 정보

### 2.1. 카자흐스탄 국제교류 현황

- 2020~2030년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sup>13)</sup>의 주요 지향점은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 위상 제고,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국으로써의 카자흐스탄 입지 강화
  - 친(親) 러시아 국가, 동시에 균형/실용외교가 핵심 기조<sup>14)</sup>
  -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적극적, 독립국가 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투르크협의회, 이슬람 협력기구(OIC) 등에 가입
  
- 주요 국가와의 국제교류
  - 러시아
    - 러시아 우호국이나,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립적인 태도 모색/ 최근 대러 제재로 인하여 많은 러시아 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국내 러시아 기업 수 4,000개로 폭증, 상당수가 IT 업체/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 러시아 우회 노선으로 부상하자 경제적 이득 창출, 러시아 에너지가 EU로 수출하지 못하자 카자흐스탄 산 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최근 독일로 향하는 에너지 수출이 증가 추세.<sup>15)</sup>
  - 중국
    -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중앙아시아 거점/ 중국 서북 지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 네트워크들이 모두 카자흐스탄 경유/ 중국의 자본,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노동력, 시장과 결합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과 중국의 해외 시장 확보 및 참여 기업들의 이윤 증대<sup>16)</sup>

13) 카자흐스탄 외교부 사이트 .  
[https://www.akorda.kz/en/legal\\_acts/decrees/on-the-concept-of-the-foreign-policy-of-the-republic-of-kazakhstan-for-2020-2030](https://www.akorda.kz/en/legal_acts/decrees/on-the-concept-of-the-foreign-policy-of-the-republic-of-kazakhstan-for-2020-2030) (검색일:2022.10.17.)

14) Global Post. "Kazakhstan delivers humanitarian aid to Ukraine" 2015.01.01.,  
<https://web.archive.org/web/20150205230451/https://www.globalpost.com/dispatch/news/agencia-efe/150111/kazakhstan-delivers-humanitarian-aid-ukraine> (검색일:2024.05.20.)

15) KIEP.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3.02.24...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30000&bid=0033&list\\_no=17198&act=view](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30000&bid=0033&list_no=17198&act=view) (검색일:2024.05.20.)

- 2023년 카-중 교역은 러시아를 넘어섰으며, 총 교역량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이탈리아, 한국, 튀르키예 순

○ EU

- 카자흐스탄의 대 EU 정책은 전방위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인 외교 주권 강화, 외교 및 경제 협력파트너 다각화의 실체화/실현에 있음<sup>17)</sup>/ 2015년 카자흐-EU 강화된 협력파트너십(EPCA)체결/ 2019년 6월, 높은 수준의 EU-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플랫폼 출범

○ 미국

- 2023년 미국-카자흐스탄의 제 5차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ESPD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 체결<sup>18)</sup> 미국과의 관계는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회담 형식인 C5+1 형태로 진행

■ 기타 국가와의 국제교류

○ 2022 러-우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은 중동 지역 국가 및 중앙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확대

- 2024년, 카자흐스탄-카타르 176억 달러 규모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시행<sup>19)</sup>
- UAE 와 에너지(풍력) 협력 확대 협약 체결<sup>20)</sup>
- 중앙아 5개국과는 2018년부터 매년 다자정상회담 실시, C5+1 형태로 미국, 한국, EU 등과 교류 중

16) 조정원. “중국-카자흐스탄 산업 에너지 협력 현황과 문제점” 2018.12.12.,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5727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9&pageCnt=10](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5727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9&pageCnt=10) (검색일:2024.05.20.)

17) 이지은. (2023).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슬라브研究, 39(3), 1-30.

18) THE DIPLOMAT. “Kazakhstan-US Convene 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 Dialogue in Astana” 2023.11.09., <https://thediplomat.com/2023/11/kazakhstan-us-convene-enhanced-strategic-partnership-dialogue-in-astana/> (검색일:2024.05.23.)

19) The Astana Times. “Kazakhstan, Qatar Start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Worth \$17.6 Billion.” 2024.03.26., <https://astanatimes.com/2024/03/kazakhstan-qatar-start-implement-investment-projects-worth-17-6-billion/> (검색:2024.05.24.)

20) MASDAR. “UAE and Kazakhstan sign landmark agreements to develop 1GW of renewables capacity” 2023.12.02., <https://masdar.ae/en/news/newsroom/uae-and-kazakhstan-sign-landmark-agreements> (검색일:2024.05.23.)

■ 한국과의 교류

- 1992년 1월 28일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포함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sup>21)</sup>
- 1993년 7월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개설, 1995년 4월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개소/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
- 양국의 인적교류는 74,000명(2019년 기준 )에 달하며, 매년 8만명 정도 증가 추세
- 지자체별 교류 협력 다수 진행
  - 서울시-아스타나시(자매교류 2004) : 행정교류 및 인적교류, 2005년 고려인동포 모국 방문단 지원(40명)
  - 동카자흐스탄주-경상북도(2008 우호교류) : 민간단체 교류, 2017년 한국 참정용사,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초청
  - 동카자흐스탄주-강원도(2011 우호교류) : 기술 및 학술교류(의료단 파견 및 초청 연수), 인적교류(공무원 및 대학생 연수), 강원도-동카자흐스탄주 비즈니스 포럼(2012)
  - 아스타나시 알마티 구-서울시 성동구(2023 우호교류) : 2023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알마티 방문, 알마티 대표단 부산 방문(알마티 시의회 의장, 의원단, 시청 직원, 기업인 등) 등
  - 알마티시 메데우 구-서울시 중구(1999 우호교류) : 경제인 내방 및 소규모 공장시찰(1999)
  - 알마티주-부산광역시(2022 우호교류): 아시아 창업엑스포 FLY ASIA 2022 개최(2022)
  - 알마티주-경기도(2008 우호교류) :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해외의료사업설명회(2009),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2012) 등
  - 알마티주 알마티 시-대구광역시(1990 자매교류) : 안경 산업, 2023 중앙아시아 치과기자재전시회 참가(2023).2023 제6회 아태안티에이징 컨퍼런스(APAAC)에 알마티 참석(2023) 등
  - 알마티주 일리 군-전라남도 보성군(2014 우호교류) : 문화예술 교류
  - 제티수주 카라탈 군-강원도 정선군(2014 우호교류) : 문화예술교류
  - 카라간다 주-울산광역시(2010 우호교류) : 무역,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2010)
  - 카라간다 주-서울특별시 송파구(1994 자매교류) : 고려인협회 민속예술품 지원, 민속예술단 파견 등

21) EMERICs. “한-카자흐스탄 관계” 2023.06.30., [https://www.emerics.org:446/nationInfoView.es?systemcode=04&mid=a10500000000&brdctsn=349595&nation\\_idx=28&search\\_area=4](https://www.emerics.org:446/nationInfoView.es?systemcode=04&mid=a10500000000&brdctsn=349595&nation_idx=28&search_area=4) (검색일:2024.05.23.)



○ 미국

- 중앙아 지역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미군기지 주둔(현재 X)/ 경제협력이 많지는 않음.

■ 한국과의 교류

- 1992년 한-우 외교관계를 수립, 동년 타슈켄트에 한국교육원 개설
- 2006년 한-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2019년 한-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4대 교역 상대국, 자동차 부품 및 산업 기계의 주요 공급국<sup>27)</sup>
- 2024년 기준, 한국 내 외국인(고려인 포함)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5위(총 8만 7698명)<sup>28)</sup>, 국내 우즈베키스탄 출신 커뮤니티 빠르게 증가 중
- 지자체별 교류 협력
  - 나망간 주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스마트팜단지 등 첨단농업분야 시찰 및 우호협력 협정(우호교류)
  - 나망간 주 나망간 시 - 경기도 성남시 : 나망간 시 의원(고려문화협회회장) 방한(우호교류)
  - 나망간 주 나망간 시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나망간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및 현지시찰(우호교류)
  - 부하라 주 - 대구광역시 :대구-부하라 우호협력도시 체결,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부하라 대학생 참여 및 한국문화체험(우호교류)
  - 부하라 주 부하라 시 - 강원도 강릉시 : 문화예술교류(우호교류)
  - 사마르칸트 주 사마르칸트 시 - 부산광역시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사마르칸트 방문(경제교류)(우호교류)
  - 사마르칸트 주 사마르칸트 시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사마르칸트 『시장 온라인회의』 추진 실무자 회의, 글로벌학술네트워크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스

27)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지역 대외 무역 동향과 발전: 우즈베키스탄 사례”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759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7599&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3.)

28) KOCIS.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사회 진입 눈앞”2024.01.17.,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검색일:2024.05.24.)

- 템로드 지구) 구축(우호교류)
- 시르다리아 주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경제사절단 방문(우호교류)
- 타슈켄트 시 셀르켈리구 - 전라남도 나주시 : 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 산업부 장관 내방 및 하우스 시설 단지 교류(우호교류)
- 타슈켄트 주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우호교류단 타슈켄트 방문(우호교류)
- 타슈켄트 주 - 경상북도 본청 : 한국전쟁 참전용사·독립운동유공자 후손 초청(우호 교류)
- 타슈켄트 주 양기울 시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산삼엑스포 우즈베키스탄의 날 행사(우호교류)
- 타슈켄트 주 타슈켄트 시 - 서울시 : 교통정책 초청연수,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컨설팅, CAC Global Summit 2020 도시정부 시장회의 등(자매 교류)
- 페르가나 주 - 경기도 용인시 : 나부르즈 축제 참가 및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 협의회-페르가나주 여성가족국 간 업무협약 체결, 페르가나주 경제대표단 -용인시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 (자매교류)
- 페르가나 주 - 인천시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 방한 등(우호교류)

## 2.3 카자흐스탄 고려인 커뮤니티

### ■ 인구 분포

- 카자흐스탄 내 약 11만의 동포 거주, 대다수가 20세기 초 러시아의 극동 지방에서 강제이주(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중앙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주로 벼농사에 적합한 카자흐 남부에 정착<sup>29)</sup>
- 고려인 중에는 정계, 학계, 의학계 등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48%에 달하며, 교육열이 높은 편/ 이주 당시 한인들의 주요 종사 업종이던 농업 인구는 약 5%로, 소련 해체 이후 주로 경제 분야에서 두각

29)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고려인 : 의지의 한국인들.” 2010.06.02.,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9/view.do?seq=74905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9/view.do?seq=74905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검색일:2024.05.20.)

■ 경제 주요 인사 및 기업

- 카자흐 부자 상위 50위에는 고려인 동포 6명이 포함<sup>30)</sup>
  - 1위 김 블라디미르, 13위 김 블라디슬라프(3.74억불) Kaz Minerals 대주주, 21위 김 비야체슬라프(2.88억불) Kaspi 은행 회장, 27위 강 세르게이(2.22억불) 중앙아시아전력에너지회사(CAPEC) 회장, 29위 김 에드워드(2.05억불) Technodom(전자제품 유통회사) 회장, 박 유리(1.66억불) Lancaster Group 이사 등이 포함
- 신라인 그룹(고려인 3세 신 안드레이, 알마티 시의원과 고려민족중앙회 회장 역임)
  - 1995년 설립한 신라인그룹은 연매출 1억 달러 규모의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반제품, 반죽 등을 생산·판매/ 카자흐스탄 내 아이스크림 점유율은 49%로 추정/ ‘CU 센트럴 아시아’를 설립하고 BGF리테일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지난 3월 알마티에 CU 1호점 개점

■ 정치 주요 인사 및 기관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
  -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인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소속 기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카자흐 지역별로 지부 형성
  - 매년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온 지역 고려인협회장과 언어 및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한 활동가 및 과학, 교육, 스포츠, 예술 분야 동포 대표,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고려인 및 동포 기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총회 개최, 해당 총회에서 5년 임기로 회장 선출

---

30)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8년 카자흐스탄 부자 상위 50위 내 고려인 동포 순위”  
2 0 1 8 . 0 5 . 2 4 .  
[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9004/view.do?seq=13468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9004/view.do?seq=13468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2024.05.20.)



그림 2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 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회장 신유리 카즈포스 대표이사(36)은 알마티시 의원을 역임/ 알마티고려민족중앙회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위원<sup>31)</sup>
-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단체들 중의 하나인 고려인협회는 1990년 고려인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과 교류를 위해 설립/ 2대 회장을 역임한 채 유리 카스피그룹 회장은 상원의원 역임/ 3대 회장인 김 로만 카스피언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사장은 현직 하원 의원<sup>32)</sup>
- 현 신유리 회장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제33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에서 ‘카자흐스탄민족회의’ 부의장(차관급)으로 임명<sup>33)</sup>
-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산하 비즈니스 협회(Деловой Клуб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회장 : 오가이 세르게이 겐나디예비치(Ogai Sergei Gennadievich)<sup>34)</sup>

31) 한인일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 세대교체 … 36세 신임 회장 선출” 2022.09.16., <https://haninnews.info/2022/09/16/%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EA%B3%A0%EB%A0%A4%EC%9D%B8%EC%82%AC%ED%9A%8C-%EC%84%B8%EB%8C%80%EA%B5%90%EC%B2%B4-36%EC%84%B8-%EC%8B%A0%EC%9E%84-%ED%9A%8C%EC%9E%A5-%EC%84%A0/> (검색일:2024.05.20.)

32) 한인일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 세대교체 … 36세 신임 회장 선출” 2022.09.16., <https://haninnews.info/2022/09/16/%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EA%B3%A0%EB%A0%A4%EC%9D%B8%EC%82%AC%ED%9A%8C-%EC%84%B8%EB%8C%80%EA%B5%90%EC%B2%B4-36%EC%84%B8-%EC%8B%A0%EC%9E%84-%ED%9A%8C%EC%9E%A5-%EC%84%A0/> (검색일:2024.05.20.)

33) 한인일보. “신유리고려인협회장, 카자흐스탄민족회의부의장에임명” 2024.04.28., <https://haninnews.info/2024/04/28/%ec%8b%a0%ec%9c%a0%eb%a6%ac%ea%b3%a0%eb%a0%a4%ec%9d%b8%ed%98%91%ed%9a%8c%ec%9e%a5-%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eb%af%bc%ec%a1%b1%ed%9a%8c%ec%9d%98%eb%b6%80%ec%9d%98%ec%9e%a5/> (검색일:2024.05.20.)

34) 고려일보. “Бизнес-клуб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2015.06.10., [https://koreilbo.com/news/biznes\\_klub\\_assotsiatsii\\_koreytsev\\_kazakhstan27/](https://koreilbo.com/news/biznes_klub_assotsiatsii_koreytsev_kazakhstan27/) (검색일:2024.05.20.)

- 고려인 협회 산하에는 비즈니스 협회, 청년회 등 다양한 분과 소재



■ 거주지역 사회 간접자본 등 시설

○ 고려극장

- 1932년 연해주에 설립되었던 한인 극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려극장이 알마티에 전용 극장을 확보하고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 2022년 작품 "갈매기" 방한공연 개최<sup>35)</sup>

- SNS : [https://www.instagram.com/korean\\_theatre/](https://www.instagram.com/korean_theatre/)

○ 고려일보

- 1923년 연해주에서 '선봉' 이란 제호로 창간된 한인 신문은 '레닌 기치'로 개편되었다가 1991년 '고려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CIS 내 한인 신문으로는 가장 오랜 지령을 가진 매체가 되어 고려인 언론의 전통을 지님/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고려인 커뮤니티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로 기능, 소련 붕괴 이후 이곳으로 진출한 한국기업, 한국인들의 초기공동체 형성, 현지적응과 관련되어 관련정보 매체로 유용한 역할 수행

- 홈페이지 : <https://koreilbo.com/>

○ 한국 교육원(알마티 소재)

- 1991년 알마티에 개원하여, 한국어 보급 활동, 유학생 지원 및 유치 활동

35)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방한공연" 2022.06.21.,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5/view.do?seq=1337645](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5/view.do?seq=1337645) (검색일:2024.05.22.)

- 수강생들은 고려인을 포함한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연간 3,000여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카자흐 출신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동 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고려인의 경우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홈페이지 : <http://www.koreacenter.or.kr/index.php>

○ 한국문화원(아스타나 소재)

- 2010년 수도 아스타나에 개소하여 한국어 강좌(세종학당)으로 연간 약 9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 및 영화 공연 등 개최

○ 세종학당

- 한국어 강좌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세종학당은 탈득오르간, 아스타나, 악토베 총 3곳 있음.

○ 고려인영농지원센터(우슈토베 시)<sup>36)</sup>

-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 시에 한국정부 지원으로 고려인 영농지원센터 설립/ 고려인 영농지원센터는 온실하우스 뿐만아니라 교육장과 합숙시설이 마련돼 있어 매년 3-4회씩 카자흐스탄 전역의 고려인 농민들을 초청해 한국의 농업전문가로부터 재배, 병충해 대처, 수확, 포장 등 농업의 이론과 실습교육 수강 가능

[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15/07/08\\_%EC%9E%90%EC%9C%A0%EC%A3%BC%EC%A0%9C\\_%EC%9D%B4%EC%A7%84%ED%98%9C\\_4%EA%B5%90-2.pdf](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15/07/08_%EC%9E%90%EC%9C%A0%EC%A3%BC%EC%A0%9C_%EC%9D%B4%EC%A7%84%ED%98%9C_4%EA%B5%90-2.pdf)

<https://src-h.slav.hokudai.ac.jp/publicitn/89/contents-63.pdf>

## 2.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커뮤니티

### ■ 인구 분포

- 강제이주된 중앙아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의 도움으로 활동하고, 이주 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벼농사에 성공/ 우즈베키스탄 정착 고려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 민족 특유의 근면성으로 김병화 농장 등 다수의 콜호즈(집단농장)에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영웅’의 반열에 오름

36) 재외동포신문. “카자흐스탄 고려인 최초 정착지에 한국식 비닐하우스 설립” 2010.12.28.,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57> (검색일 :2024.05.20.)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약 17만 명으로 CIS(총 50만 명) 국가 중 최다
- 구소련 시절에는 집단농장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다수 청년들이 비즈니스에 종사 중/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로 계절적 노동 이주 증가 추세
-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타슈켄트주(7만 4,000명), 타슈켄트시(7만 5,000명), 안디잔주(1,320명) 등에 밀집 거주.
- 우즈베키스탄에 부모를 남겨 두고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성인 자녀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노부모에 대한 돌봄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 1) 송금, 2) 이주 자녀의 노부모 국제 이주(한국행)<sup>37)</sup>

■ 경제 주요 인사 및 기업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비즈니스클럽

- 회장:나테즈다 아나톨예브나(Nadezhda Anatolyevna)

- 홈페이지 : <https://koryoin.club/>

○ 장 발레리(Валерий Николаевич Тянь) 전 우즈벡 국영항공 사장(~2018), 상원의원 역임



37) 김경학. 2016.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자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광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 22(1) : 169-226.

■ 정치 주요 인사 및 기관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1991.11월 창설, 타슈켄트 위치) - 기능과 역할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유사



- 1991년 우즈베키스탄 총리실 산하 소수민족 문화부흥지원센터에 고려인 대표 단체로 공식 등록/ 우즈베키스탄 주요 지방에 26개 산하 지방고려문화협회 설치, 현재 협회는 고려인 사업가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 특히 고려신문을 소유하면서, 고려인과학자협회, 청년협회 등 지원<sup>38)</sup>

- 홈페이지 : <https://interkomitet.uz/en/culture-centers/6?nav=about>

- 이메일 : [akkz3@mail.ru](mailto:akkz3@mail.ru)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Uzbekistan 高麗人文化協會)”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2286> (검색일:2024.05.23.)

그림 6 고려인문화협회장 박  
빅토르



- 회장 박 빅토르<sup>39)</sup>(Pak Viktor, 1958년생, 여당 LDP당)는 고려인 최초 하원 의원이자, 현재 우즈벡 하원 내 경제 위원회 소속/ 건축회사 ‘오카르다이스’ 설립자로 우즈벡 내 대형 방직공장 25개 소유/ 2012년부터는 고려인문화협회장 역임, 현재 회사는 아들이 운영 중<sup>40)</sup>
  - 2024년, 호남대 고려문화협회장 박 빅토르와 글로컬 협력단, 교육문화 협력 방안 간담회 개최<sup>41)</sup>
  - 2024년, 김태흠 충남지사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 방문하여 고려인문화협회장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문화예술 상호 교차 공연 △유학생 유치 등 양국 대학 간 교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활성화 등 추진 논의<sup>42)</sup>
- 신 아그리피나(Shin Agrippina) :상원의원(2015~) 겸 초대 유아교육부 장관 임명(2017~)

39) LEGISLATIVE CHAMBER OF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Pak Viktor Nikolayevich”<https://parliament.gov.uz/en/deputies/pak-viktor-nikolayevich> (검색일: 2024.05.25.)

40) 재외동포의 창. “우즈베키스탄의 첫 고려인 선출직 하원의원 박 빅토르”  
[https://webzine.korean.net/201510/pages/sub02\\_02\\_01.jsp](https://webzine.korean.net/201510/pages/sub02_02_01.jsp) (검색일:2024.05.24.)

41) 호남대학교. “호남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와 간담회” 2024.02.20.,  
<https://www.honam.ac.kr/UniNews/read/22670> (검색일:2024.05.23.)

42)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 우즈벡 한국문화예술의 집 찾아 고려인 문화협회와 간담회 개최”  
2024.05.06.,<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38476> (검색일: 2024.05.25.)



○ 리 드미트리(Dmitry Romanovich Lee) 국가프로젝트 청장



○ 박 바체슬라프(Pak Vyacheslav) 우즈베키스탄 유망 프로젝트 국가처(NAPP) 제1 국장, 전 재무차관(2018)



■ 거주지역 사회 간접자본 등 시설

○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 신문

- 《고려신문》은 1997년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에 의해 창간된 민족어 신문, 현재는 고려인문화협회에서 재정적 지원

- 홈페이지 : <https://koryo-saram.site/wp-content/uploads/2024/02/ku-1>

- 우즈베키스탄고려인과학기술자협회(KSTS Tinbo)
  - 박 발레리(PAK Valeriy)
  - 연락처 : [linkedin.com/in/valeriy-pak-6b890b1b](https://www.linkedin.com/in/valeriy-pak-6b890b1b)
- 한국교육원(수도 타슈켄트 소재)
  - 1992년 개원, 중앙아 5개국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수강생 보유
  - 매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많은 고려인 학생들이 응시, 3~4급 취득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16명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가 한국교육원 내 57개 학급에서 1,345명의 수강생에게 한국어 강의
  - 홈페이지 : <https://www.tashkec.uz/kr/about/our-history>
- 세종학당
  - 한국어 강좌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며, 우즈벡 내 세종학당은 나망간, 테나우,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지역에 소재
- 아리랑 요양원
  - 고려인 1세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고려인 1세대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원(아리랑 요양원) 설립<sup>43)</sup>
  - 2006년 한-우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측이 건물을 무상 증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동 요양원 운영 중/ 2010.3월 개원 후 현재 총 40명의 독거노인이 동 요양원에서 생활 중.
- 한국문화예술의 집(타슈켄트 소재)



-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들의 한국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2014년 양국 정상외교장관 합의에 합의해 2018년 준공

43) 우리문화신문. “고려인의 강제이주 이야기와 아리랑요양원” 2019.12.25.,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2176>

### 3. 연천군 고려인 유치방안: 고려 사항 및 제언

#### ■ 연천군 고려인 유치방안 고려 사항

- 축산업, 농업이 중심 산업인 연천군으로의 고려인 유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연천군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인력난 타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때, 카/우(무슬림 국가) 출신이지만 대부분 무슬림<sup>44)</sup>이 아닌 고려인들을 고국의 해당 산업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이들이 **문화/종교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카/우 출신국에서 **고려인들의 원 직업이 대부분 개인 사업이나 전문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국(한국)에서 전혀 다른 업종(축산업)을 위해 이주하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음 -> 이주를 결정할 연천군만의 **‘이주 인센티브 정책’** 필요(정착 지원금, 비자 문제 간소화, 언어/문화 적응 교육 제공 등)
- 축산농가 인력 보급에만 정책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연천군에서 시행 중인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기계임대 및 농정지원 사업 등을 고려인 정착 지원 사업과 연계할 필요** -> 즉, 이주 고려인 집단에 축산업으로의 연결 외에도 본국에서의 자신의 전문성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 있음, 이는 연천군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연천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고려인 유치는 농, 축산업 등을 지속하기 위한 단기 노동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천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지자체 정책 수립 필요성** -> ‘고려인 지역사회 구성원 맞춤 정책’을 개발하여, 1) 가족 또는 개인 이주자별 맞춤 정착 프로그램 개발(비자 문제, 정착 지원금, 정착까지 주거 문제 해결 등), 2) 중도입학자(초/중/고)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3)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내 고려인 이주 담당관 배정 제안 등
- 특히, **비자 문제**는 현재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들이 이주를 결심한 단계에서부터 이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해결하기 힘들어 하는 문제로 지목
  - 연천군에서는 현지 조사 시 고려인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잠재 고려인 이주자들

44)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중앙아 일반 무슬림들을 유치해서 돼지 사육 시설로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청취하고,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함<sup>45)</sup>

- 유치 후, 단순히 행정 공지 등을 통해 이주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처리할 경우, 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출국해야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또한 **가족 공동체가 여전히 끈끈한 중앙아 고려인**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가족 모두가 타국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세심하게 정책을 구성할 필요

#### ■ 제언

- 연천군에서 선도적으로 ‘**고려인 행정복지센터**’(가칭) 설립하여, **행정지원 인력을 고려인과 한국인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을 제안
  - 1) 비자 문제 해결, 주거 지원, 언어 지원<sup>46)</sup>
  - 2)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기초적 한국 문화 및 제도 교육 제공
  - 3) 이주 가족 내 자녀 교육/돌봄 지원
  - 4) 고려인 가족/친인척 연천군 사업장 연수(1-2주 프로그램)
  - 5) 이주 고려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직업상담소 운영 등
- 연천군의 축산업 지속성을 위해 이주 고려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농가(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필요 ->이주 고려인들이 연천군 정착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본국의 친인척들에게 연천군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연천군 고려인 이주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언어 교육의 경우 다음의 사안을 고려
  - 글로벌고려인네트워크(채예진 이사장), 유라시아차세대리더스협회(김소연 대표) 등과의 자문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 필요. 끝.

45) 모범사례로 알려진 제천시의 경우,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비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한 바 있음

46) **한국어 교육의 경우, 출신 국가 언어와 한국어 모두 유창하며, 출신 국가 문화를 알고 있는 중앙아 출신 유학생 강사 추천** -> 고려인의 경우 모국에 대한 애정이 크나, 오랜 기간 출신 국가에서 성장하여 왔기에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일반적인 외국인 수준으로 상당히 높음. 따라서 소통 및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신 국가 언어 및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국어국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 석, 박사 이상 중앙아 출신 유학생이 효율적일 것이라 고려되며, 국내 중앙아 출신 유학생들의 다수가 한국어, 국어국문학, 한국 문화를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출처: 김소연 대표, 유라시아차세대리더스협회),

## 부록

### ■ 기존 유치 사례

#### ○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

-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들의 한국행으로 광주 월곡동에 마을 형성
-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선정, 단, 고려인마을 관계자들은 **비자 문제와 통역, 문화와 커뮤니티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성 주장**<sup>47)</sup>
-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측에서는 7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 고려인 5세대까지 있음<sup>48)</sup>
- **고려인종합지원센터 : 2000년대 초 먼저 정착한 고려인 신 조야를 필두로 고려인동포지원사업 시작, 이후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인권보호,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sup>49)</sup>

#### ○ 인천시(연수구 함박 마을)

- 인천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시행(만 1~4세 미취학 아동의 보육료로 월 20만원 지원)<sup>50)</sup>
- 2018년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sup>51)</sup>: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교육, 외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응급구호 등 보건 의료, 자녀 돌봄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 ○ 제천시

- 제천시는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sup>52)</sup>을 통해 2026년까지 고려인 1000명의 이주 모색<sup>53)</sup>

47) 광주일보. “광주 고려인마을,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성지 됐다” 2023.07.31.,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90801500755738006> (검색일:2024.05.24.)

48) 광주일보. “마을 곳곳에 녹아있는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 2024.01.29.,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6521800763804295> (검색일: 2024.05.24.)

49)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홈페이지.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50) 인천 in. “인천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나서” 2023.01.06.,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41> (검색일:2024.05.24.)

51) LEX.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2018.11.05.,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370798-2183606-%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A%B3%A0%EB%A0%A4%EC%9D%B8%EC%A3%BC> (검색일:2024.05.24.)

52) 충남일보. “제천시,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4.05.23.,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983> (검색일:2024.05.24.)

53) 한겨레. “제천 고려인 유치 시동…내달 이주정착 80명 선발” 2023.08.31.,

- 지원 사항 : 참여 고려인 동포에게는 4개월 간의 단기체류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주거지 연계, 보육·의료 지원, 우수 인재 우대지원, 법률생활고 총 상담 등 이주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연계 취업
- 지원 대상 : 단기방문(C-3-8), 방문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 지원 조건: 제천시에 2년 이상 실거주, 정착교육프로그램 이수
- 제천시 담당자 (임정호,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장) 연락처 : kmlimjh@korea.kr

#### ■ 국내 고려인 커뮤니티 정보

-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oryoin Global Network)(국내 고려인 대표)
  - 이사장 : 채예진(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4세,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 제천시 동포정책자문위원, 전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 등)
  - 국내외 고려인들 간 소통 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려인 동포들의 단체<sup>54)</sup>
  - SNS [https://www.instagram.com/koryoin\\_global\\_network/?hl=am-et](https://www.instagram.com/koryoin_global_network/?hl=am-et)
  - 연락처 : [k.golabal.net24@gmail.com](mailto:k.golabal.net24@gmail.com)
  
- 유라시아차세대리더스협회(2020년 창설, 한국인 대표)
  - 대표 : 김소연
  - 고려인 포함한 중앙아 출신 유학생 네트워크 지원 및 연구 지원. 중앙아 출신 회원 약 200명
  - 홈페이지 : <https://www.eflakorea.org/>
  - 연락처 : [efla.koreaofficial@gmail.com](mailto:efla.koreaofficial@gmail.com)

끝.

---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6582.html> (검색일: 2024.05.24.)

54) 연합뉴스. “국내외 고려인 소통 기반 만든다…'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출범” 2024.04.25., <https://m.yna.co.kr/view/AKR20240425027500371?section=society/all> (검색일:2024.05.25.)

## ■ 부여군 & 부여군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 ○ 부여군

- 백제고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백제: 해상강국, 22담로 개척)
- 농업강군, 부여 10품(수박, 멜론, 토마토, 밤, 왕대추, 양송이, 표고, 딸기, 포도, 오이), 6개 품목 전국 생산량 1위, 농업생산액 전국 1위
- '굿뜨래' 농식품공동브랜드, 1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첨단스마트농업 선도,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우드지팜 코스닥 상장)

### ○ 'K-부여굿뜨래농업특화단지' 조성

→ K-부여 굿뜨래 농업 국제화&특화단지 사업(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지역)

## ■ 의미

- 농업 영토 해외 확장, 수출전진기지 구축, K-농업 선도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농업기업 육성
- 농업기술 수출 및 전수,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 '굿뜨래' 브랜드 위상 제고 및 세계화
- 기후위기 대응 및 식량위기 극복 기여

## ■ 원칙 및 방향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교류 증진
- 선진원예농업기술 수출 및 기술 지도 중심
-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및 농업인력 교류 추진
- 농산업 진흥 및 연관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생태계 구축
- 상호신뢰 구축 및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 시범농장 조성·운영 후 단계적 접근
- 문화예술 및 관광 등 상호 방문 교류 병행
- 나망간주 세종학당을 통한 네트워크 및 협조 체계 구축
- 충청남도,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 ■ 추진 경과 및 상황

- 사전 검토와 준비 기간(19.12월~) →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연
- 부여군 & 나망간주 포괄적 교류협약 체결(22.12월)

- 파트너 선정, 에이전시 역할 수행 → 나망간 세종학당(학당장 송인성)
  - ※ 신뢰성, 네트워크, 인적자원(통역 등), 기초소양교육 등
- 부여군 & 나망간주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화상회의 개최
- mou 체결(23.6월)
  - ① 부여군 & 나망간주 K-부여굿뜨래농업특화단지 조성  
(츄스트군, 부지1000ha, 49년 무상사용)
  - ② 부여군 & 나망간주 & 국내 기업 & 우즈베키스탄 기업(스마트팜, 씨감자)
  - ③ 부여군 & 나망간주 & 세종학당(관리협약)
- 스마트팜 기술고문 파견 계약 추진
- 해외농업특화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호 본계약 체결
  - 무균씨감자 대량생산 특허기술 이전사업(나눔에프앤비&양기코루간군, 24.1월)
  - ※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보장받고, 파견 인력의 체류비 등 일체를 지원받는 농업기술 수출계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1천ha 기준 매년 최소 1천 4백만불의 매출 기대
- 농업연수생 교육 추진
  -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농업연수생 1차 연수(23.12~24.2월, 3개월 과정 22명)
  - 24년 시범 2회, 25년 4회 확대 검토
  - 굿뜨래농업대학 외국인연수과정 개설 운영 검토
- 해외농업개발TF 구성·운영(24.1월)
- 명예 해외연락사무소장 위촉(송인성 학당장)
- 지속적인 상호 초청 및 방문 추진
  - 계절근로자 교류관련 mou
  - 식량·사료 작물, 과수, 축산 분야 진출 추진
- 국내 민간 법인 설립(농업회사법인 글로벌 부여군 굿뜨래 주식회사)(24.1월)
- 조례 제정 추진(농식품부 사전검토 및 법제처 컨설팅 → 입법예고 예정)
- 식량작물(벼)재배 시범단지 조성 추진(명블럭군, 14ha, 24.5월~)
  - 벼 2기작, 벼·보리 2모작 기술 적용
  - KOPIA 협조
- 부여군 백제문화제, 나망간주 국제꽃축제 상호 초청 방문

## ■ 장애요인

- 내·외부 이해와 인식의 문제
- 환경과 여건 문제(기후, 토양, 용수, 도로, 전력 등)

- 문화의 차이(종교, 시간약속 등)
- 정치·행정시스템의 차이
- 추진 주체(민관거버넌스)와 역량의 문제
- 소통의 문제
- 물류 문제
- 사업비 확보
- 리스크 관리(금융, 계약위반 등)

■ 극복방안

- 사례 만들기 → '무균씨감자 대량생산'
- 꼼꼼한 사전·기초 조사 및 연찬회
- 국가별(우즈베키스탄 등) ODA사업 방향 전환 및 사업 재설계
- 광역시도별 기초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개발 및 교류사업 지원
-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기능 확대 및 협업체계 구축
- 농업연수생 교류 활성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해외 온라인 농업기술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

※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

-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kotra자료)
-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1~'25,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